

훈련과 교육의 재고찰

정 창 호¹⁾

경기대학교

〈요 약〉

들뢰즈·가타리는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쇠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과격한 훈련’은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영 훈련 시 몸의 힘을 빼는 일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를 움직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에는 훈련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갈마들어 있다. 고대 소크라테스는 진실 말하기를 유도하는 정신의 훈련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체 훈련을 구분함으로써 교육적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오늘날에도 교육적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가 제기한바, 근대 이래로 ‘규율훈련’형 사회에서 인간은 자발적 복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아가 오늘날 ‘기능훈련’이라는 말조차 경영 언어로 대체된 바 우선 이를 극복할 이론적 논의가 요청된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전(前)인칭적 특이성들’에 입각한 ‘타자-되기’론은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 간의 위계를 말소시킨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정신의 훈련을 ‘기능훈련’으로 흡수해 버린 근대적 사고를 전도시킴으로써, 소크라테스가 남긴 교육 언어로서의 훈련의 의미를 사유할 이론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이 교육적 효과를 발관삼아 궁술(弓術)훈련의 교육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궁술훈련은 엄격한 훈련과 명상을 관통하는 훌륭한 교육적 사례이다.

주제어 : 과격한 훈련, 규율훈련, 들뢰즈·가타리, 소크라테스, 궁술훈련

1) 교신저자, natfogel@hotmail.com

I. 문제제기

오늘날 훈련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에서 훈련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²⁾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훈련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외형적 능력에 불과한가. 더구나 인지능력 까지도 자본의 대상이 된 오늘날 정신의 훈련조차도 수치화 가능한 것, 교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박휴용, 2015 참고).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을 구분한 바 전자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후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전수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적어도 고대의 훈련의 의미는 도덕적인 삶이라는 주제와 유리(遊離)되지 않았던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또한 ‘규율훈련’이 중세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금욕주의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훈련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규율훈련’은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관옵티콘으로 상징되는 자발적 복종 체계의 상징으로 전락한다(Foucault, 1973/심세광·전혜리, 2014: 99-105 참고).

들뢰즈·가타리(Gilles Deleuze, 1925~1995 et Félix Guattari, 1930~1992)는 이러한 ‘규율훈련’형 사회를 거쳐 ‘관리사회’에 이른 오늘날 훈련의 의미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육의 이념과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들뢰즈의 파이데이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답을 모색한 바 있다. 실마리는 들뢰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었다. “배우기 위해 따라야 할 방법은 더더욱 없다. 있는 것은 다만 개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과격한 훈련(un violent dressage), 어떤 도야나 파이데이아 뿐이다. … 그것은 배움의 운동, 비자발적인 것의 모험이다.”(Deleuze, 1968: 215/김상환, 2004: 364, 강조는 연구자) 연구자는 이 작업을 통해 배움의 이념이 ‘감응의 능력’임을 확인하였으나 특정한 방법론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보았다. 그렇다면

2)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서 2016. 4. 1. 인출.

그의 배움론은 이념적 선언에 불과한가.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연구자들은 신체중심의 교육과 글쓰기 교육에서 교육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 연구의 결론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내적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획되었다. 그 실마리가 바로 그들의 ‘과격한 훈련’이라는 표현이다.³⁾ 교육학자인 로빈슨(Robinson, 2015)의 지적대로 학습(배움)을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체계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학습의 ‘체계화’에서 필요한 것은 형상화 가능한 반복 내지 훈련일 것이다. 그러나 훈련은 정신의 도야를 포괄하는 교수(教授)와 대비되어 폄하되거나 행동주의의 부정적 요소 등과 중첩되며 교육학적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창호(2012)는 볼노우(Otto. F. Bollnow, 1903~1991)의 『연습의 정신에 관하여』(Vom Geist des Übens, 1978)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습과 참된 자아의 형성이 깊은 관계를 맺음을 보여주었다. 볼노우는 연습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연습에 전적으로 몰두하면 인간 자신 속에서 -어느 정도는 외적 행동의 배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즉, 거기서 그는 마치 스스로의 힘에 의한 듯이 올바른 삶의 상태로 이행한다. 이 올바른 삶의 상태는 아마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정창호, 2012: 114 재인용)⁴⁾ 정창호(2012)는 활쏘기 연습 사례와 볼노우의 논의를 연결 지음으로써 본 연구의 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⁵⁾

3) ‘훈련’으로 번역된 프랑스어 ‘조련(dressage)’에는 ‘길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4) 볼노우는 연습을 참된 자아 형성에, 훈련을 푸코식의 규율화된 신체 단련에 연결 지어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정창호, 2012: 118-119 참고). 그러나 본고는 볼노우의 연습과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과격한 훈련’을 교육적 함의를 띤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5) 사전에서 연습은 “특정의 습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의 행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훈련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으로 정의되며 교수(教授)와는 반대되고 훈육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네이버 두산백과에서 2016.4.2. 인출). 본고는 이상의 사전적 정의에

이에 본고는 다음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훈련의 의미는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가. 교육학자 프링(Pring, 2010)은 ‘기능훈련’이 ‘수행 경영’ 담론과 같이 경영 언어로 치환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는 신체 훈련과 정신의 훈련을 구분함으로써 교육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한 바 있다. 둘째,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과격한 훈련’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푸코는 자발적 복종의 상징으로 판옵티콘을 제시한 바, 그의 논의는 ‘초월론적-경험적 자아’라는 칸트적 구도를 갱신하면서 두 자아 간의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도는 두 자아 간의 고정적 관계에 대한 확인에 그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들뢰즈·가타리의 ‘타자-되기(devenir-autre)’는 칸트-푸코와 달리 전인칭적 주체성에 기반함으로써 이를 극복한다. 이 진화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즉, 들뢰즈·가타리에게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과격한 훈련’의 진화과정은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의 위계를 지워버린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을 함께 사유한 소크라테스의 논법으로 회귀하는 ‘교육적 효과’를 낳는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 언어로서 훈련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교두보가 마련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습이나 훈련의 의미를 독립적인 주제로 삼은 교육학적 논의는 드물다. 정창호(2012)는 활쏘기 연습의 사례를 불노우의 시각에서 구성하여 ‘형식화’와 ‘자기규율’이라는 연습의 보편적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교육학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보그(Bogue, 2013)는 들뢰즈가 전통적인 도제 훈련을 벗어난 철학하기를 가르친 스승이라고 평가한다. 선생으로서 들뢰즈의 삶은 궁술스승을 닮았다. 그는 철학교육에서 엄격한 단계를 거친 기본동작을 익히고 나면 선(禪)의 경지로 인도하는 궁술훈련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서 보다시피 연습과 훈련을 ‘개념적’ 차원에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즉, 불노우의 ‘연습’이 본고에서는 ‘훈련’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다. 본고에서는 교육적 사례로 이 논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현대사회에서 ‘과격화 훈련’의 의미

1. 현대사회에서 훈련의 의미

영국의 교육학자 프링(2010)에 따르면 철학은 언어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훈련과 관계 깊은 ‘기능(skill)’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은 목수의 정교한 동작, 언어 기능, 인지 기능 등을 두루 가리킨다. 기능은 아무런 의미 변화도 없이 여러 말들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기능훈련’이라는 말을 보자. 이 말에는 복잡한 사회적 함의가 들어있다.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증대한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효율성이란 구체적인 목표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교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예컨대, ‘수행 경영(performance management)’이라는 말을 교육적 맥락에서 쓸 경우 그 전통적 의미는 퇴색된다. 전통적 교육활동은 세계의 실재를 ‘이해’하는 일, 그 이해를 ‘추구’하는 일, 문학과 예술을 통한 인간성의 ‘탐구’ 등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입각해 정의되었다. 그러나 ‘수행 경영’ 담론에서는 학습자가 소비자나 고객 혹은 주주들로 바뀌고, 교육과정이 ‘공급’의 대상으로 변한다. 나아가 교육의 목적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 지표’에 따른 ‘감사’로 측정 가능한 대상이 된다. 역설적인 것은 재정 축소라는 말이 오히려 ‘효율성 증대’라는 의미로 둔갑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결정한 활동 패키지에 근거한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해되기에 이른다. 이 점에서 경영 모델에 입각한 교육은 지시와 통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경영 언어의 확산 이면에는 교육적 언어의 소멸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질문을 탐구하

거나 묻는 교육 고유의 활동이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활동과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적 발달, 실천적 능력, 공동체 참여, 도덕적 성실함, 탁월성, 자아 인식, 사회 정의와 같은 언어를 통해 교육을 이해해왔으나 이제 효율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육을 정의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Pring, 2010/이지현, 2013: 100-101 참고).

이제 기능훈련의 질은 탐구와 이해, 질문하기보다는 시간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의 비율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때의 산출량이 ‘얼마만큼 이득을 남겼느냐’는 표면적 수준을 넘어 교육연구 자체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제시된 각종 인성교육론에는 교과를 초월하여 국가 경쟁력 담론이 스며들어 있다. 사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회·정치·경제 등과 관계 맺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성교육론에서 말하는 인성교육 요소가 경영 논리에서 파생된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통합형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핵심 역량의 반영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약 역량중심 접근법을 도입한다면 현재의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황인표, 2014: 275) 본래 핵심역량은 기업경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단순히 그 기업이 잘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능력, 즉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기업의 능력”⁶⁾을 가리킨다. 월마트의 물류 시스템,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력, 소니의 소형화 기술, 캐논의 정밀기계 및 광학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00) 또한 인적자원의 의미를 개인적 성장과 총체적 역량개발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바, 결국 핵심역량의 원천은 사람이 가진 지식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총체적 능력 중 ‘인성’이라는 대상 또한 비교

6)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서 2015.4.6. 인출.

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총체적 인성교육론’의 특징이다(최승현, 2015 참고).

그렇다면 인성이 비교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고대(古代)의 사유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일찍이 철학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훈련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그 맥락을 살펴보자. 그가 아테네 청년들을 사악함에 빠지게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친구 크리톤은 탈옥을 권한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썼는데도 주변의 친구나 제자들이 탈옥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아친다. 이때 그가 드는 예가 바로 신체 ‘훈련’이다. 운동기술을 익히려는 젊은이가 체육교사를 찾아갔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전문가인 체육교사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잘 구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말하는 능력(파레스시아)이다. 파레스시아는 다른 사람에게 아침하는 능력인 레토릭과 대비된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의 명령을 몇 차례 어긴 것이 계기가 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예컨대, 아르기누사이 해전 후 장군들은 마침 불어 닦친 폭풍우로 사체를 수습할 수 없었다. 이에 장군들의 반대파인 재판관들은 이들을 한꺼번에 유죄 처리하기로 한다. 이 때 담당의원 가운데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이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장군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부했다. 또, 그는 과두정치기에 죄 없는 살라미스인 레온을 데려오라는 명령도 거부했다. 다른 네 명은 이를 따랐으나 소크라테스만이 거부했던 것이다. 즉, 아테네에서 공적 진실을 말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올바름과 그름을 구분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이 구분은 다름 아닌 체육교사가 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훈련을 통한 영혼의 올바름을 설파하다 죽음에 직면했고 탈옥마저 거부했다. 이때 그가 떠올린 것이 신체 훈련에 대한 은유이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에게 훈련은 단순 반복이

아닌 정신의 도야를 포괄하는 자기극복의 행위였다(大澤眞幸, 2011: 187-190 참고).⁷⁾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의 올바름을 신체처럼 훈련시킬 수 있는가.’ 바꿔 말해, 이 질문은 ‘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포함하는 정신의 훈련을 의자 제작 같은 기술(테크네)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의자 제작은 정형화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훈련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는 정신의 훈련이 타인의 전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련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진실을 말하는 능력은 누군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아첨하거나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훈련 받을 수 있지만 목숨을 걸 만큼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타인이 주입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파이데이아’라는 총체적 개념을 통해 이 유산을 물려받았고 교육의 의미 또한 신체 훈련을 뛰어넘는 지적, 인격적 통합에 이르는 작업임을 지난한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 바꿔 말해, 대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비판하는 능력은 기능훈련이 갖는 절차와는 상반된 창발성을 포함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자본주의란 게임의 규칙 중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이 규칙이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규칙 자체가 어떤 의지를 지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든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퍼센트로, 효과와 효율성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표시될 때 거기에는 그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있다.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투입과 산출이 분모와 분자로 변용된 것에 불과하다. 교육 분야에서 학교 시간표가 생산 공정이 되고, 이 과정을 마친 아이들이 제 시간에 나와야 할 빵처럼 취급되는 것과 같이 말이다.⁸⁾

7) 본래 오사와 마사치(大澤眞幸, 2011)는 소크라테스를 푸코의 파레시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하였다. 본고는 이를 훈련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였다.

8) 이 문단에 대한 아이디어는 연구자의 동료로서 XX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XXX

이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오늘날 기능훈련은 경영 언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면에는 교육 언어의 소멸이 자리 잡고 있다. 기능훈련과 같은 인식은 보다 심층적인 교육담론에도 존재한다. 즉, 인성 또한 기능훈련처럼 비교 가능한 대상 - 투입량과 산출량으로 표기되는- 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는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다. 반면 고대의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훈련과 신체의 훈련을 구분함으로써 단순한 기능의 전수와 정신의 도야가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설교하였다. 우리는 이 유산을 교육적 전통으로 이어받았고 여전히 그의 인식이 경영 언어의 범람에 반(反)하는 교육적 언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훈련의 의미를 교육적 언어로 맥락화하여 재고(再考)하고자 하는 본 연구 또한 이런 담론의 ‘효과’를 들뢰즈·가타리의 논의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물음, 곧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과격한 훈련’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 절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보자.

2. ‘과격한 훈련’의 교육적 효과

기능훈련의 의미가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된다면 이와는 대비되는 ‘과격한 훈련’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프링의 통찰은 내생화된 자본주의라는 현대 사회에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쓸모 있는 노동력이 되기 위해 평생 훈련받을 것! 미래 연구가들은 머지않아 한 사람이 평생 갖게 될 직업의 수가 스무 가지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외국의 우수 대학들은 이런 상황에 맞춰 전공체계를 개편하느라 분주하다. 마케팅과 철학, 인공지능과 바이올린을 함께 공부하거나 디자인과 건축학, 음악연주와 미학을 넘나들어야 한다. 그야말로 대학은 상아탑(象牙塔)으로서의 모습을 뒤로 하고 미래사회의 불안에 대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훈

학인(學人)으로부터 얻었다.

련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기능훈련과 같은 것으로만 이해되어야 할까. 이로부터 어떤 교육적 의미를 끌어낼 수는 없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한 우회로로 연습의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훈련에도 적용해 보자. 정창호(2012)는 독일의 교육철학자 오토 볼노우의 『연습의 정신에 관하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습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볼노우는 인간을 ‘연습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끊임없는 연습 가운데 자신의 가능성과 본성을 발견한다. 즉, 연습을 통해 도달한 기예의 숙달은 단순한 쾌감이나 기쁨을 넘어 억압된 마음의 상태를 바로잡아 준다. 볼노우는 ‘앎’의 영역과 ‘할 수 있음(Können)’의 영역을 구분하고 후자만을 연습의 고찰대상으로 삼는다. 전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아직 불완전한 동작이나 기능을 점차 개선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앎의 관점에서 본 연습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할 수 있음의 관점에서 본 연습은 ‘연습 자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연습은 연습 자체로 인해 완전함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는 양상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인간을 ‘할 수 있음’이라는 관점, 바꿔 말해 어떤 것을 하길 원하는 존재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더 잘 하길 원하는 존재로도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잘 하지 못함을 제거해 나가는 연습의 과정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 연습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정창호, 2012: 103-110 참고).

연습은 연습해야 할 행위에의 자기 망각적인 헌신과 그 행위를 가급적 훌륭하게 그리고 모든 반복 속에서 이전보다 더 낮게 만들려는 집요한 의지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역으로 너무 큰 긴장과 그로 인한 경직은 연습의 성과를 위협한다. ... 연습에서 추구되는 성취는 이완된 마음속에서만 달성된다. 이 두 측면, 즉 긴장과 이완은 연습이 올바른 결과로 귀결되려면 서로 결합

되어야 한다(Bollnow, 1978: 55/정창호, 2012: 112 재인용).

볼노우는, 연습은 처음에는 그 자체로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전체 활동에 연결됨으로써 특정한 형식을 산출하고 나아가 의미를 생산한다고 말한다. 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연습은 엄격한 자기규율을 요구한다(앞의 글). 긴장과 이완의 조화 끝에 얻게 되는 것은 연습의 ‘의미’와 자기 단련인 것이다. 주의할 것은, 볼노우가 연습의 보편성 -형식성, 자기규율- 을 논한 시기는 개혁교육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볼노우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근대교육학과 현대교육학의 경계라는 환경 속에서 파악된 연습의 보편성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 의미연관, 이성의 자기규율이라는 칸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볼노우가 ‘앎’과 ‘할 수 있음’을 구분하는 장면에서 이를 보았다.

그러나 본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철학 외부 -정신분석, 구조주의 등- 의 충격과 더불어 신자유주의라는 환경 속에 놓인 훈련은 어떤 교육적 의미를 부여받는가라는 점이다. 즉, 우리는 볼노우가 연습의 보편적 특성에 관해 통찰한 바를 변화된 지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지 사유해야 한다. 이에 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분석한 것은 푸코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여러 사회 제도들은 ‘규율훈련형’ 인간을 생산해내는 장치들이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규율체계들의 요소들... 공간 내에 고정하기, 시간의 최적의 추출, 몸짓·태도·관심에 대한 통제들에 의한 신체의 힘의 적용과 착취, 지속적인 감시와 즉각적인 처벌을 행하는 권력의 구축, 마지막으로 그 자체가 익명적이고 비개인적인 것으로 작동하면서 예속화된 개인성들을 항시 포착하게 되는 통제 권력의 조직화 등을 발견하게 된다(Foucault, 1973/심세광·전혜리, 2014: 114).

푸코가 지적하는 품행의 관리야말로 ‘규율훈련’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품행을 관리하는 사례로 그가 분석한 판옵티콘과 정신의학의 출현 등은 모종의 규칙이 인간 신체를 속박하는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저항 가능성을 크게 차단해 놓았다. 주체가 자신 안에 권력관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예속주체화’ 된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인 연습의 교육적 의미를 경유하여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속주체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론적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2008)는 푸코와 들뢰즈·가타리 간의 전략을 대비시킨다. 우선 푸코는 경험에 대한 이성의 규율을 앞세운 칸트의 구도를 권력관계로 치환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양자의 심급 -초월론적 자아(권력의 대항자)와 경험적 자아(피지배의 심급)- 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멈춘다. 이 초월론적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판옵티콘이다. 판옵티콘은 모든 저항이나 마찰에서 벗어나 있는 가장 이상적 형태의 권력이다. 바꿔 말해, 푸코는 칸트의 ‘경험적-초월론적 이중체’를 권력관계로 상대화하였으나 이 구도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반면 들뢰즈·가타리는 반-오이디푸스적 경제론, 곧 ‘타자-되기’라는 구도를 취함으로써 이 고정적 관계와는 상이한 주체론을 전개한다. 그들은 ‘타자-되기’라는 다양체적 주체⁹⁾를 라캉의 ‘팔루스(phallus)’적 주체와 대립시킴으로써 ‘예속주체화’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한다(佐藤嘉幸, 2008/김상운, 2012: 60-84 참고).

라캉이 팔루스적 주체를 도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팔루스란 실제 남근

9) “주체의 다양체는 욕망하는 생산의 다양체의 귀결이다. 욕망하는 생산이란 기계들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흐름이었다. 추상적 양으로서의 흐름들은 물질적이고 신호적이다. 즉, 그것은 경험적 장에서 오가는 에너지에 상응한다. ‘주체’가 경험적 장에서의 흐름들을 소비하면서 끊임 없이 생성변화를 반복한다면, 이런 주체는 다양체로 규정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양한 생산의 귀결로서 ‘주체’(초월론적 장)는 다양체로 되는 것이다.”(佐藤嘉幸, 2008/김상운, 2012: 84, 강조는 저자)

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시니피앙이다. 팔루스를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두 개의 시니피앙이 만들어진다. 팔루스를 가진 것은 실제의 아버지가, 가지지 않은 것은 실제의 어머니가 된다. 즉, 팔루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르는 초월적인 대문자 시니피앙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초월적 원점인 팔루스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좌표축을 가진 상징적 좌표계를 설정한다. 이 때 환자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일정한 위치를 부여받는다. 팔루스라는 절대자가 아버지, 어머니와 구별되는 ‘나’라는 위상을 부여한다. 팔루스는 내가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못하도록 막고 아버지 자리의 차지를 금지한다. 이 금지에 의해 환자는 아버지, 어머니와는 구별되는 ‘나’로 거듭난다. 이제 나를 정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명확히 구별되는 ‘오이디푸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삼각형화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추리해서, 이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욕망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Deleuze et Guattari, 1972: 83/김재인, 2014: 132, 강조는 저자) 이는 정확히 사후의 욕망이 욕망의 생성 자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로써 환자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complexe d’Edipe)라는 허구의 이미지가 석워진다.

중요한 것은 들뢰즈·가타리가 오이디푸스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유비적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보기에 “가족은 사회장의 집합이 적용되는 부분집합이다.”(ibid., 315/445) 왜일까. 가족은 “사회적 재생산의 지배적 요인들을 구성하고 펼치는 대신 이 요인들을 자기 고유의 재생산 양식 속에 적용하고 감싸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ibid.) 가족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개인으로 환원됨으로써 자본의 흐름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개별 단위로 기능한다. “극한에는 단지 아빠, 엄마, 나만 있으며 아빠가 받은 전제군주 기호, 엄마가 떠맡은 잔여 영토성, 나뉘고 절단되고 거세된 나만 있다 ... 모든 것은 미리 형성되어 있고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ibid., 316/446) 역사적으로 국가, 민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

단은 생성소멸을 겪어 왔으나 가족만큼은 외관을 달리할 뿐 그 본질이 변한 적이 없다. 혈연관계를 부정한 종족, 민족, 국민은 아직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¹⁰⁾ 만일 가족이 자본의 공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본은 이를 해체하려들 것이다. 역으로 말해 이는 자본주의라는 공리계가 가족 ‘덕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족을 이론적으로 떠받치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이상이 들뢰즈·가타리가 가족과 사회의 외연이 같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환원되는 정신분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와는 다른 층위의 주체성을 모색해야만 한다. 들뢰즈·가타리는 라캉처럼 ‘타자’라는 인칭적 수준의 탐구가 아닌 전인칭적 수준을 탐구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마련한다. 곧, “자아가 가두고 억압하는 전인칭적 특이성들(singularités prépersonnelles)을 해방하기.”(ibid., 434/598)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전인칭적 특이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욕망의 전면적 해방, 곧 생성하는 욕망에 대한 긍정에 다름 아니다. 이는 프로이트-라캉의 인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들뢰즈·가타리는 욕망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욕망은 그 자체로 생리적인 신호일 뿐이다. 그러나 이 욕망의 전면적 해방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 때의 질서란 당연히 자본주의적 욕망을 가리킨다.

이제 이런 전인칭적 특이성들을 훈련의 맥락에서 파악해 보자. 이를 위해 들뢰즈가 언급한 수영의 사례를 보자.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근력 덕분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탈 줄 알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다. 그들은 정확한 동작을 익히고자 부단히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몸의 긴장을 빼는 법을 익힌다. 이 긴장을 빼는 일은 정확한 동작을 익히는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즉, 수영강사가 ‘이 부위에 힘을 빼십시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연습자 자신이 몸에 익히지 않는 한 힘을 뺄 수 없다. 힘을 빼는 것은 오로지 정확한 동작을 익히는

10) 가족의 질서를 부정하고 불행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는 아마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강간한 오이디푸스 왕일 것이다.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앞서 볼노우가 연습의 보편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형식성과 자기규율이라는 이성적 측면에 주목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볼노우는 긴장과 이완의 조화에 관한 언급에서 자기 망각적 헌신과 집요한 의지를 동시에 언급한다. 즉, 볼노우는 연습의 최종목적과 더불어 연습의 발생적 측면을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훈련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자 한다면 볼노우가 생각한 연습의 최종 목적과 더불어 발생적 측면도 사유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노우의 ‘자기 망각적 헌신’은 전인칭적 특이성들에, ‘집요한 의지’는 생성하는 욕망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들뢰즈·가타리의 구도에서 양자의 실체는 구별되지 않으며 이는 수영 훈련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곧 우리 신체의 어떤 특이점들을 객체적인 이념의 독특한 점들과 결합하여 어떤 문제제기의 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합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의 문턱을 규정하고, 이 문턱의 수준에서 우리의 현실적 행위들은 대상의 현실적 결합관계들에 대한 지각에 맞추어 조정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문제 제기적 이념들은 자연의 마지막 요소들인 동시에 [라이프니츠적 의미의] 미세 지각들의 대상, 의식 이하 차원의 대상이다. 그런 까닭에 ‘배움’은 언제나 무의식의 단계를 거치고 언제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런 와중에 자연과 정신 사이에 어떤 깊은 공모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Deleuze, 1968: 214/김상환, 2004: 363).

수영을 배우고자 한다면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경험에 노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생의 몸을 관통하여 교사의 몸을 가로지르는 변형과 생성이라는 역동적 형태를 말한다. ... 수영을 배울 때 필요한 질문은 ‘수영이란 무엇인가’ 따위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가, 언제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Ramey, 2013: 179) 들뢰즈는 ‘배움/수련’을 명사형 ‘견습/실습(apprentissage)’과 동사형 ‘배우다(apprendre)’로 나누어 이해한다. 전자인 실습, 곧 본고의 훈련에 해당하는 배움은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후자인 배운다는 생성의 과정은 무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가리킨다.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이 운동과 모험은 어떤 감정, 어떤 기억,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유 등을 여기에 필요한 모든 폭력들을 통해 차례로 엮어가고, 마침내 니체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일군의 철학자들의 훈련(dresser un peuple de penseurs)’, ‘정신의 훈육(donner un dressage à l’esprit)’으로 귀결된다.”(Deleuze, 1968: 215/김상환, 2004: 364, 강조는 연구자) 앞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훈련에 대한 비유에서 정신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이 구별됨을 보았다. 즉, 육체에 대한 훈련은 절차를 만들어 전승할 수 있지만 정신의 훈련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들뢰즈·가타리는 개인 이전의 전인칭성에 기반함으로써 집단적 주체를 사유할 수 있는 길을 연다. 때문에 정신의 훈련 또한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과격함 훈련’을 거친다면 누구나 가능한 대상으로 바뀐다. 거기에는 ‘권리 상’ 개인차가 없다. 이에 관해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들뢰즈에게 배움이란 ‘명제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것’에 응하여 행하는 수련을 말한다. 후자에 따른다는 것은 단번에 정착되고 획득되는 정해진 것을 배우는 지식이나 행동과 달리, 늘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무이하고 상이한 ‘이것’에 대해서, 늘 변화하는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자와의 마주침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이다(Williams, 2013: 24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플라톤은 명제적 지식의 원천을 상기설로 해

소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 이데아의 세계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들뢰즈·가타리는 명제적 지식조차도 하나의 욕망이며 그것은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진화해간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상기가 아닌 창발의 관점에서 사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쟬빌라스(Zembylas, 2007)가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배움의 논리를 교육에 응용할 때에는 기쁨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신체의 욕망(무의식)이 사유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분리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배움은 그만큼 ‘과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가 생성하는 욕망을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 지을 때에 이에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그(Bogue, 2013)는 선생으로서의 들뢰즈와 궁술 스승의 가르침 간에 유사성을 발견한다. 들뢰즈의 아미앵 시절 제자였던 로저(Roger) 등의 증언에 따르면 들뢰즈는 철학교육을 엄격한 도제식 훈련이 아니라 “철학과 철학사에 대한 대담한 개념화에 바탕을 두고, 유머를 즐기며, 매우 정력적으로 수업을 이끌었다.”(ibid., 24 재인용) 즉, 학생들 자신의 철학적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궁술 스승을 닮았다. 궁술 스승은 다음과 같이 제자가 선(禪)을 추구하도록 가르친다.

선(禪)의 기예 밑에 깔린 원리를 깨우치는 일은 인지적이거나 지성적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여타 기예와 같이 우주의 원리 밑에 깔린 직관적 깨달음에 근거한다. ... 선의 기예를 가르치는 철학이란 기술의 반복적 연습을 통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그 기술은 원리에 대한 스승의 이해로 형태화되어 재현된다. 그것은 [스승의-연구자 삽입] 공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여덟 단계로 이루어진 궁술에 대한 끝없는 반복을 통해 가능할 뿐이다(Kushner, 2000: 7/Bogue, 2013: 34 재인용).

앞서 정창호(2012)는 궁술 연습의 사례로부터 ‘형식화, 자기규율’이라는 연습의 보편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궁술훈련에 관한 이상의 논의로부터,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과격한 훈련’을 거쳐야만 선(禪)의 경지에 이름을 볼 수 있다. 궁술훈련은 수영훈련처럼 엄격한 동작을 익히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주의 원리를 직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행한다. 이런 정신의 훈련이야말로 소크라테스의 유산을 재음미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능훈련’이 ‘수행 경영’과 나란히 쓰일 때 그 함의(connotation)는 전통적으로 쓰이던 의미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대의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의 위상을 구별하였다. 그에게서 정신의 훈련이 낳은 ‘진실 말하기’는 쉽게 전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구별은 교육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은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육적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한편 근대에 등장한 판옵티콘은 ‘규율훈련’의 정점을 보여준다. 주체는 자발적으로 ‘예속주체화’ 되어 권력관계의 그물망 안에 놓인다. 푸코는 초월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심급을 구분함으로써 양자 간의 권력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규율훈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상에 대한 모색 -자기 돌보기- 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런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들뢰즈·가타리의 ‘과격한 훈련’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들 또한 훈련을 ‘말을 길들인다’는 뜻을 가진 ‘조련(dressage)’으로 새기지만 그 함의는 자신들의 ‘타자-되기’론과 결부되어 있다. 우선 그들은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신체 훈련의 사례로 수영을 든다. 수영에서 몸의 힘을 빼는 것은 아무

리 의식으로 통제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는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진화의 대상이다. 근력이 뛰어난 사람이 수영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 타는’ 사람이 수영을 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의 특이점들과 신체는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우리는 들뢰즈·가타리의 ‘타자-되기’론에서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 간의 위계가 말소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근대 ‘규율훈련’형 주체를 전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의 가치를 함께 논했던 소크라테스로의 ‘뒤집힌’ -양자의 구별에서 양자의 일의성으로- 회귀를 통해 교육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노우와 들뢰즈·가타리의 연습과 훈련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는 공통 사례로 궁술훈련을 꼽을 수 있다. 불노우가 연습의 형식성과 자기규율을 부각시켜 그 교육적 의미를 도출했다면, 들뢰즈·가타리는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는 ‘과격한 훈련’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대 소크라테스의 정신의 훈련의 의미를 되살렸다. 궁술훈련에서의 반복적 기술훈련과 선(禪)을 깨닫는 노력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궁술훈련 사례와 같이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 간의 연계를 볼 수 있는 교육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기능훈련’과 같은 말로 전락한 훈련의 의미를 새롭게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가타리의 ‘과격한 훈련’에 대한 논의는 이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다.

참고문헌

- 박휴용(2015).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9(2)**. 45-71.
- 정창호(2012). “연습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찰: Bollnow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3)**. 99-124.
- 최승현(2015).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인성교육론”.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연구 37(2)**. 179-197.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인표(2014).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의 쟁점과 개발 방향에 대한 일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47-280.
- 佐藤嘉幸(2008). 『權力と抵抗: フーコー, ドゥルーズ, 데리다, 알튀세르』. 京都: 人文書院. 김상운 역(2012). 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서울: 난장.
- 大澤眞幸(2011). 『‘世界史’の哲學: 古代篇』. 東京: 講談社.
- Bogue, R.(2013). *The Master Apprentice*. edited by Semetsky, I. and Masny, 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36.
- Deleuze, G.(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UF.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 et Guattari, F.(1972). *L'anti-œ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Minuit. 김재인 역(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 Foucault, M.(1973/2003). *Le pouvoir psychiatr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3~1974*. édition établie sous la direction de François Ewald et Alessandro Fontana, par Jacques Lagrange, Paris: Seuil/Gallimard. 심세광·전혜리 역(2014).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서울: 난장.
- Pring, R.(2010). *The Sage Handbook of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Sage Publishers. 이지현 역(2013). 교육철학과 교육실천. **교육철학1: 이론과 역사**. 서울: 학지사. 93-110.
- Ramey, J.(2013). *Learning the Uncanny. Deleuze and Education*. edited by Semetsky, I. and Masny, 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77-195.

- Robinson, K.(2015). *Creative Schools: the grassroots revolution that's transforming education*. New York: Viking. 정미나 역(2015). 학교혁명. 서울: 21세기북스.
- Williams, J.(2013). *Time and Education in the Philosophy of Gilles Deleuze. Deleuze and Education*. edited by Semetsky, I. and Masny, 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35-251.
- Zembylas, M.(2007). *Risks and Pleasures: a Deleuzo-Guattarian pedagogy of desire in educatio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3). 331-347.

Abstract

The Educational Meaning of Training : In the Works of Deleuze and Guattari

Chang Ho Jeong
Kyonggi University

Deleuze and Guattari revive the educational meaning of training. For them, “a violent training” always penetrates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For example, we can float on water only by swimming. There is a complex historical exploration on the subject of training. Socrates distinguishes the training of spirit from that of the body, so he secures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al language. This heritage continues to us until today. However, Foucault argues that, since the modern era, humans have accepted an active obedience by “disciplinary training”. Nowadays, the term “skill discipline” is also reduced to business language, and we should overcome this situation. Deleuze and Guattari suggest a “becoming-other” argument predicated on “pre-conscious singularities” on this point. The training of spirit evolves in relation to a body and other circumstance for them. Therefore, the traditional hierarchy between spirit and body is erased in their argument. Ironically, this argument displays “educational effectiveness” to success Socrates’s heritage subverting to the modern thinking of it. In conclusion, we can now rethink the educational value of training based on this effectiveness. Kyudo training is an excellent example of education through body and spirit.

Key words: *Violent training, Disciplinary training, Deleuze and Guattari, Socrates, Kyudo training*

논문투고일자: 2019.11.13.

논문심사일자: 2019.12.23.

게재확정일자: 2019.12.26.